

시칠리아 이슬람-노르만 도시문화



강사: **이희수** 교수

튀르키예 이스탄불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스탄불 마르마라 대학교 중세사학과에서 조교수로 강의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정년하고 현재는 성공회대 석좌교수 겸 계명대 특임교수로 있다. 2022년 제63회 한국출판문화상 대상 선정 저서인 <인류본사>를 비롯해 중동-오리엔트 역사와 이슬람문화에 관한 국내저서 98권, 외국어저서 12권, 번역서 12권을 출간했다.

지중해는 신화와 문명의 바다다. 지중해를 압축하는 두 개의 키워드다. 지중해에서는 신들조차도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들과 함께 살았다. 남몰래 사랑을 나누고, 정의와 질투심, 삼각관계의 긴장감 속에서 신화는 이어진다. 나에게 갇히지 않고 다름을 받아들여 함께 하는 문화는 무한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열어주었다. 지중해는 결코 유럽의 바다가 아니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은 물론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 이슬람 문화 등 인류가 이룩한 찬연한 역사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동부 지중해의 오리엔트-이슬람 문명, 북아프리카 전 해안에서 발아되어 온 남부 지중해 문화, 그리고 800년간 이슬람이 지배를 받았던 이베리아 반도의 안달루시아 지중해도 중요하다. 뭐니뭐니 해도 지중해 지식문명의 중심축은 시칠리아였다. 피렌체와 로마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화려하게 꽃피게 한 지역이고 남쪽의 앞선 이슬람 문명과 아프리카 문화까지를 소화하여 풍성한 문화의 깊이를 받아시켜 이를 유럽 중심부에 전달한 뜨거운 문화용광로 지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칠리아를 로마의 관점이 아닌 이슬람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온전한 이탈리아 문화와 르네상스가 더 잘 읽힌다.